

폴은 유럽에서 온 씨앗, 특히 제비꽃 씨앗과 채꽃 씨앗을
정성껏 심었는데, 거기서 필 꽃들은 그것들만 폴에게 따로
부탁했던 비르지니의 성격, 그리고 그 아이가 처한 상황과
얼마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듯 했어. 하지만 섬까지
오는 길에 상해버렸는지, 아니면 아프리카에서도 이 지역의
기후가 잘 맞지 않았는지, 그중 아주 적은 수만 싹을 틔웠을
뿐, 그조차도 완벽한 형태로 자라지는 못했네.

그러던 중 질투가, 특히 프랑스 식민지에서는 사람들의
행복까지도 능가해버리곤 하는 질투가 섬에 별의별 소문을
퍼뜨리면서 폴에게 많은 걱정을 안겨주었지. 비르지니의
편지를 가져온 뱃사람들은 그녀가 곧 결혼할 거라고 단언
하기도 했어. 비르지니가 결혼하게 될 궁정귀족의 이름을
들먹이는가 하면, 심지어 식은 벌써 치렀고, 그걸 자기가
목격했다고 떠드는 이들도 있었네. 처음에 폴은 상선이 실
어 나르는 소식들일랑 무시했었지. 지나가는 자리마다 허튼
소문을 지어내 퍼뜨리기 일쑤니 말이야. 하지만 급기야 섬
주민들 여럿이 간악한 동정심으로 이 사안에 달려들어 그를
측은히 여기자, 폴은 그 소문을 어느 정도 믿기 시작했어.
게다가 폴은 자기가 읽었던 뱃소설에서 배신이 아주 쉬
운 일로 다뤄지는 것을 보았고, 그런 책들에 담긴 묘사는
유럽의 풍속을 꽤 충실하게 반영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,
라 투르 부인 댁 따님이 거기서 타락하지는 않을까, 그래서
그녀가 했던 지난날의 맹세는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